

제과·아이스크림도 가격인하...롯데·빙그레·오리온·삼립 동참

정부 물가안정 기조 영향...식품업계 전반으로 확산

기업들 "통신비 등 비싼 건 두고 가공식품만 잡는 건 보여주기식" 불멘소리



롯데웰푸드가 빙그레, 삼립 등 제과·빙과·양산빵 업체들이 일부 제품 가격 인하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19일 김중구 차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 유통구조 점검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국제 정세 불확실성으로 국민의 물가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시기에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출고분부터 가격 인하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제과·빙과류·양산빵을 생산하는 5개 업체는 19개 제품 가격을 100~400원, 최대 13.4% 인하한다.

제과 부문에서는 롯데웰푸드와 해태제과,

오리온 등 3개 업체가 제품 10종 가격을 평균 2.9~5.6% 인하한다.

롯데웰푸드는 비스킷 제품 '엄마손과이(127g·254g)'를 2.9%, '청포도 캔디', '복숭아 캔디' 등 캔디 3종 가격을 4% 각각 인하한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최근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번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태제과는 '계란과자 베베린'과 '물리폴리' 등 비스킷 제품 2종 가격을 평균 5.0%, 오리온도 '배배', '오리온웨하스', '바이오캔디' 가격을 평균 5.5% 내린다. 빙과 부문에서는 롯데웰푸드, 빙그레 등 2개 업체가 아이스크림 8종 가격을 평균 5.4~6.0% 인하한다.

롯데웰푸드는 '찰떡우유빙수설 250ml', '와소다맛 140ml 캔슬' 2종 가격을 평균 13.4% 내린다.

빙그레는 '빙키바' '구슬플라포 키위&파인애플', '왕실쿠키샌드 피넛버터' 등 아이스크림 6종 가격을 평균 8.2% 인하한다.

빙그레 관계자는 "국제 정세 불안과 내수 경기 침체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산빵 업체도 가격 인하에 나선다. 롯데웰푸드와 삼립 2곳은 총 8개 제품 가격을 평균 8.2~13.4% 내린다.

롯데웰푸드는 '기린왕만쥬', '기린 한입 꿀호떡' 등 2종 가격을 평균 6.0%, 삼립은 '포켓몬 고오스 초코케익', '캘리포니아 후두크립샌드' 등 제품 5종 가격을 평균 5.0% 인하하기로 했다.

최근 제과·제분업체들이 밀가루와 설탕 가격을 인하고, 정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출범시키는 등 물가안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식품업계 전반에서 가격 인하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 등 4곳이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4.6~14.6% 인하했고, CJ제일제당, 대상 등 6개 업체가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3~6% 내리기로 한 바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에 대한 불멘소리로 나온다.

이현진 기자

롯데, 스키·스노보드 선수단 격려 행사 개최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총 8억 6천만 원 규모의 포상금과 기념 선물 전달



롯데는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와 함께 19일 시그니엘 서울에서 스키·스노보드 국가대표단 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동계 올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며 대한민국 스키와 스노보드 종목의 위상을 높인 선수단과 지도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신동민 롯데 회장 비롯해 최형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교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위원장, 문체위 여당 간사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체위 야당 간사 박정호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대

한체육회장, 최홍훈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다. 또한 최가은, 김상경, 유승은 선수 등 메달리스트를 포함한 국가대표 선수단 및 지도자, 협회관계자 등 총 130여 명이 함께 자리할 예정이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선수 및 지도자에게 총 8억 6천만 원의 포상금과 기념품을 전달한다.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은 선수에게는 3억 원을 수여하며,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김상경 선수와 유승은 선수에게는 각각 2억 원과 1억 원을 전달한다. 또한 6위를 기록한 이재운 선수에게도 1천만 원의 포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헌신해 온 스노보드 하프파이프·빅에어와 알파인 종목 지도자에게도 총 2억 5천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포상금 및 선물 전달식과 함께 지난 12년간 롯데와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국가대표 선수단이 함께 성장해 온 과정을 담은 기념 영상이 상영되며, 메달리스트들이 직접 대회 준비 과정과 경기 뒷이야기를 전하는 메달리스트 토크쇼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2026 밀라노 코르티나동계 올림픽에 출전할 대한민국 스키·스노보드 선수단은 불모지로 여겨지던 설상 종목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포함해 총 3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업계는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선수와 지도자들의 노력과 함께 2014년부터 이어진 롯데의 지속적인 지원을 꼽고 있다.

롯데는 2014년부터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을 맡아 스키와 스노보드 종목 육성을 위해 300억 원 이상을 지원해 왔다.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금을 포함하면 800억 원의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이현진 기자

대상,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4개 부문 1위 석권

'한국산업의 구매안심지수' 조사 김치 부문에서도 '종가' 3년 연속 1위 기록



대상이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 등을 평가하는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 총 4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했다.

대상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국내 최초의 브랜드 진단 평가 제도 '2026 제28차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에서 김치, 냉동국물, 장류, 파스타 소스 등 4개 부문 1위를 차지했다

고 밝혔다. 올해는 1만3500명의 소비자가 약 230여 개 산업군의 소비재, 내구재, 서비스재 등을 대상으로 인지도와 충성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

김치 부문에서는 No.1 김치 브랜드 '종가(Jongga)'가 경쟁 브랜드를 크게 앞서며 2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100% 국내산 농산물 사용 원칙과 체계적인 품질 관리, 최신 김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신제품 등이 소비자 호응을 이끌어낸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 냉동국물 부문에서는 청정원 호명스가 '초간편 국물요리'를 앞세워 새롭게 1위에 올랐다. 해당 없이 몰탄 부여 풀이된 국물요리가 완성되는 제품으로, 간편식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류 부문에서는 우수한 원료와 독창적인 발효 속성 기술로 국내 장류 시장을 선도해온 '청정원 순창'이 1위를 기록했다. 전통 제조 방식을 기반으로 연구 개발과 제품 혁신을 이어가며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제품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파스타 소스 부문에서도 전문점 수준의 품질과 다양한 맛, 용도에 맞춘 제품 구성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청정원'이 1위를 차지했다.

이현진 기자

한전KDN, 공공기관 최초 '생성형 AI 기반 보안관제 서비스' 성공적 실증

국정원 암호화 기준 충족한 AI 보안관제 실증 성공... 공공 보안혁신 본격화 선도

에너지ICT 전문 기업 한전 KDN(사장 박상형)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보안관제 서비스 3종의 개발 및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본격적인 보안관제 활용에 돌입했다.

한전KDN의 '생성형 AI 기반 보안관제 파일럿 서비스' 실증은 수시로 발생하는 공공 보안관제 이벤트를 단순 검색하는 수준을 넘어 보안관제 업무에 AI를 대폭 활용하는 '보안관제 인텔리전스' 시대를 연 것으로 특히 빅데이터 플랫폼 및 실시간 위협 정보를 생성형 AI와 결합해 실용화한 공공기관 최초의 사례다.

이번 실증에 성공한 시스템의 핵심은 '폐쇄망 기반 대규모

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구축으로 보안성과 전문성 동시 확보를 통해 데이터의 외부 유출을 원천 차단한다.

해당 시스템은 ▲Qdrant 벡터 DB를 활용한 검색 증강 생성(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질의 대응 ▲GPU 클러스터 기반의 추론 및 파인튜닝 ▲사용자 통합 관리 UI 서버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내부 보안 접속·이용기록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되는 실시간 위협 정보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관제 인프라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한전KDN은 생성형 AI 범용 기술과 보안 특화 기술을 결합한 지능형 서비스 3종 개발

로 보안관제 업무의 실질적인 혁신을 이끌어냈다.

'챗봇형 AI 관제지원'은 보안 지식 베이스를 기반으로 공격 기법 분석과 유사 사례, 대응 권고사항 등을 제시하며 전문가 수준의 정답 판별이 가능하도록 돕는 '지능형 비서' 역할로 관제 품질 제고와 정답 판별 시간을 개선했다.

'자연어 기반 로그 검색'은 복잡한 질의어 없이도 자연어만으로 보안 데이터를 검색하고 결과를 요약해 LLM의 언어 이해력을 보안 데이터 분석에 이식한 혁신 사례로 꼽힌다.

무엇보다 주목을 받는 것은 국내 최초로 'AI 취약점 보고서 자동 생성'으로 기존 수작업으로 이

루어지던 업무를 AI가 1~2분내 자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실시간 위협 지표와 내·외부 취약점 정보를 정리·개선하여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한전KDN은 실증을 통해 이벤트 분석 시간을 20분 이상 단축하는 등 관제 효율 향상과 반복적 업무의 자동화로 관제 인력인 단순 업무를 벗어난 고도화된 분석과 대응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공공 암호화 기준을 충족한 점은 향후 공공기관 전반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공공 분야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보안 기준을 만족시킨 만큼 다양한 기관에서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진 기자

한화생명,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중립투자형과 안정투자형 유형 1위

중립투자형(중위험) 상품 3년 수익률 53.93%로 1위, 6개월 수익률 15.21%로 1위 기록

안정투자형(저위험) 상품 1년 수익률 16.27%로 전체 1위,



53.93%를 기록하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중립투자형 상품 가운데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또 다른 중립투자형 상품인 한화생명 디폴트옵션 중립투자형 TDF2도 3년 수익률 47.23%로 3위에 올라 상위권 성과를 나타냈다.

'한화생명 디폴트옵션 중립투자형 BF1'은 글로벌 주식과 글로벌 채권, 금·리츠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ETF 기반 자산배분형 환노출 상품으로, 최근 금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효과 등이 더해지며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한화생명은 2024년 1분기 공시에서도 중립투자형 수익률 1위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위권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한화생명 디폴트옵션 안정투자형 BF1'은 1년 기준 수익률 16.27%로 전체 1위, 6개월 기준

수익률 9.30%로 2위를 기록하며 저위험 상품군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약 53조원, 지정 가입자 수는 734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립금은 33%, 가입자 수는 16% 증가한 규모다.

투자유형별 평균 연간 수익률은 적극투자형 14.9%, 중립투자형 10.8%, 안정투자형 7.5%, 안정형 2.6% 수준이며, 한화생명은 모든 투자유형에서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한화생명은 원리금보장형 상품뿐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자산배분형 BF펀드,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낮추는 글로벌 자산배분 TDF(Target Date Fund) 등 고객의 투자 성향과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디폴트옵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송원 기자

SKT-에릭슨, AI 기반 네트워크 혁신 통해 6G 시대 준비

6G 시대 대비 AI 기반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SK텔레콤이 에릭슨과 손잡고 AI 기반 네트워크 혁신을 통한 6G 시대 준비에 나선다. SKT는 에릭슨과 함께 5G부터 6G까지 AI 기반 네트워크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차세대 통신 기술 혁신을 추진하려는 양사의 공동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네트

워크 기술의 지속적 진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5G 환경에 혁신 기술의 실질적인 적용을 추진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6G 연구와 표준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첨단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와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협력 범위는 ▲AI 기반 무선 접속망(AI-RAN) ▲5G 고도화 ▲개방·자율 네

트워크(Open and Autonomous Networks) ▲보안 ▲6G 표준화 및 미래 기술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우선 양사는 AI-RAN 분야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의 성능, 보안, 에너지 효율 향상을 추진한다. AI-RAN은 네트워크가 채널 환경을 스스로 학습하고 예측하는 과정을 통해 최적화를 수행,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5G 기술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차세대 서비스를 구현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방·자율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네트워크 운영을 자동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양사는 공동 연구를 통해 글로벌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6G 기술 생태계에서 선도적 위상을 확보하며 AI 기반 차세대 네트워크 진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이영진 기자

한화생명이 2025년 4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 지정운용제도) 상품 중 중립투자형과 안정투자형 유형에서 전체 사업자 가운데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19일(목)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은행, 증권사 등 41개 금

용회사가 총 319개의 디폴트옵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상품 유형별로는 ▲안정형(초저위험) 41개 ▲안정투자형(저위험) 93개 ▲중립투자형(중위험) 95개 ▲적극투자형(고위험) 90개로 구성돼 있다.